



태풍



적조

# ‘海賊’

## 서·남해안 덮치나

올 여름, 서·남해 바다가 심상찮다. 수온 상승으로 인한 아열대성 해파리떼가 예년에 비해 빨리 출현하는가 하면, 양식 어민들을 잠 못들게 하는 적조 발생 시기도 앞당겨졌다. 또 기후 온난화 및 이상 기온으로 올해 광주·전남을 찾는 태풍 위력도 한층 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민들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해파리

## 층간소음 40% “아이 뛰는 소리”

### 공동주택 피해 설문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40% 정도는 ‘아이 뛰는 소리’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지정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안대희 명지대 교수)는 지난달 10~21일 수도권 층간소음 순회교육 설명회 참석자 35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서울, 인천, 용인, 안산 등 수도권 아파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피해가 심한 주 소음은 아이들 뛰는 소음 40%, 실외기 소음 8%, 어른이 걷는 소음 7% 순이었다. 층간 충격음에 해당하는 아이들 뛰는 소음과 어른 걷는 소음이 47%로 소음피해를 절반을 차지했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은 사회의 개인주

의화 47%, 공동체 문화의식의 부족 34%, 미비한 법적 제도 15% 등의 순으로 꼽았다. 소음피해 가장 심한 시간대는 저녁(오후 6~10시),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순으로 87%가 저녁 시간 이후 잠들 때까지 소음피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강력한 법적 제도 마련이라는 응답이 59%를 차지했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39%에 그쳤다. 층간소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8% 이상이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가장 필요한 교육 내용을 묻는 항목에서는 층간소음 관련 법과 제도라는 응답이 70%, 아이들 의식 교육이라는 응답이 11%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의 가족 형태는 부모와 자녀 2명 등 4인 가족이 47%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 올 여름 수온 상승에 위력 커지고 예년보다 빨리 출현... 어민들 벌써부터 초긴장

◇적조 출현, 50일 앞당겨져=전남도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고흥군 내나로도 동부해역에서 길이 2.3km, 폭 100~200m 규모의 적조가 발견됐다. 이 일대 해역의 적조 출현은 지난달 26일과 28일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다. 지난해 38일(8월5일~10월18일)간 적조가 지속돼 여수·고흥 지역 등 35여개에서 돌돔·전복 등 300여만 마리가 폐사해 24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통상 8~10월경 발생하는 적조가 올해는 50여일 앞당겨 관측된다고, 무더위도 예상되고 있어 대규모 적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당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전남도 등 관계 당국은 적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파리 출현도 ‘비상’=독성이 강한 노무라입깃해파리 출현도 시작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

난 5일까지 해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상대로 ‘모니터링(감시)’을 진행한 결과, 진도 해역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고흥 등 전남 서·남해안 일대에서 보름달 물해파리가 발견됐다. 보름달물 해파리의 경우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는 게 모니터링 요원들 설명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4월 동중국해 일부 해역을 대상으로 어린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지난해에 비해 20배 정도 증가 분석한 사실을 확인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남 서·남해안도 해파리 피해가 예상되는 형편이다. 지난해 태풍으로 서남해안에 대량 유입됐다 는 점에서 올해도 태풍을 타고 북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최대 길이가 2m, 무게 150kg에 달하는 맹독성 해파리로, 지난 2003년 이후 대량으로 출현하면서 어민들 피해를 잇따랐다.

◇커지고 세진 태풍, 전남 덮치나= 기후 온난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과 이상 기온으로 올해 광주·전남을 찾는 태풍도 한층 위력이 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풍은 바닷물 온도가 27도가 넘어가는 북위 5도 이상의 아열대 해역에서 발생한 비구름이 공기 소용돌이와 맞물리면서 발생한다. 태풍은 이후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 받으며 세력을 유지하거나 발달하는데,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위력이 세진 태풍 출현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 100년간(1900~2000년) 국내 평균 대기온도가 1.5도 상승, 그만큼 수증기 유입량이 늘어나고 연안 표층 수온도 남해의 경우 최근 30년간 1.04도, 서해는 0.97도 올랐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해수면도 높아지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지난 1969년부터 우리나라 해수면 높이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3.17mm), 동해안(2.12mm),

서해안(1.36mm) 등 전체 해역의 해수면이 연평균 2.48mm 상승했다.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폭(1.8mm)을 웃도는 것으로, 제주항의 해수면 상승(연평균 5.97mm)은 세계 평균의 3배가 넘는다. 여기에 집중호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30년간 국내에 내린 비의 양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1년의 경우 1980년대에 비해 일 강수량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2.37배(43일→102일) 증가했고 시간당 50mm 이상 집중호우도 2.3배(10일→23일)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 등을 강타한 불라벤과 덴빈도 입은 피해 규모는 43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지대 설치, 농·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태풍 올때 유리창 파손 막으려면...

### 창틀 이음매에 테이프 붙여라

태풍이 올 때 유리창 파손을 방지하려면 테이프를 창틀에 붙이는 게 효과적이라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8일 큰 태풍과 맞먹는 초속 50m의 강풍기를 이용해 유리창 파손 실험을 한 결과, 유리창에 찢은 신문지를 붙이거나 테이프를 엑스(X)자로 붙이는 것보다 유리창 창틀 이음매에 테이프를 붙이는 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틀에 의한 유리창 파손은 창틀과 유리 사이가 벌어져 유리창이 흔들리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유리 자체보다는 창틀의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유리창틀 자체의 강도가 약하거나 창틀과 유리창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경우에 파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연구원 관계자는 “강풍에 유리창 파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규격, 노후 창틀은 즉시 교체하거나 창틀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히실리온이 벗겨진 창틀은 테이프로 고정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무등산 등산객 수 실시간 체크

무등산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정확히 집계돼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립공원 무등산 곳곳에 센서형 탐방객 계수시스템이 구축, 등산객 한 사람까지 정확하게 파악된다. 이를 통해 수집된 탐방객 수는 홈페이지 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차후 무등산 환경 관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무등산국립공원은 9일 무등산 내 중심사 지구 6곳, 원효사 지구 6곳 등 총 12곳

에 국비 8000만 원을 들여 ‘센서형 계수기(사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중심사 지구에는 주차장~중심사(상가) 방향, 주차장~옛길 방향, 제1수원지~가운데 등에 총 6곳의 계수시스템이 구축된다. 원효사 지구에는 원효사 위 차단지 주변, 주차장, 원효사 상가~피막재 방향 등 각각 6개소에 탐방객 계수시스템이 구축된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탐방객 밀집지역과

### 탐방객 계수 시스템 12곳 구축 국립공원 관리 환경자료 활용

이동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4월14일부터 중심사·원효사 입구 등 7개소에서 녹색순찰대, 사회복무요원이 직접 탐방객 수를 조사해 계수기 설치 위치를 정했다고 밝혔다. 무등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센서형 계수기 도입을 통해 국립공원 서버에 저장된 탐방객 수는 차후 공원관리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장마철 축산분뇨 슬그머니 배출 꼼짝마!

### 전남도 특별 지도

전남도는 12일까지 농식품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장마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장마철에는 비가 내리는 틈을 타 가축분뇨, 폐기물 등을 무단 방류하는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게 전남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남 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 90개소

를 대상으로 관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되며 ▲가축분뇨 배출 행위 ▲발효가 덜된 퇴비와 액체비료를 지붕, 덮개 등 비가림시설 없이 저장하거나 투기하는 행위 ▲배출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16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벌여 모두 44개소를 적발, 개선 명령 등을 내렸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삼희 공인중개사**

**부동산 빠른매매**  
( ~ 50억가능)

**급매매상담**  
(건물,상가,아파트,주택,기타)

**법인소유부동산**

**지분부동산매매**

**미준공건물매매**

**경매진행중인물건**

**금융상담**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말소후 책임중개합니다.

**부동산 매수자 상담환영**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 삼희빌딩 3층  
062)234-1199  
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태영부동산컨설팅사무소**

★매 매★

- \* 남구 방림동 순환도로점 지하11층 지상6층 대지344㎡ 건평 1576㎡ 매매가111억원(병원적합)
- \* 동구 용산동 도시철도공사 뒤편 임야 32.231㎡ 매매가 ㎡ 당 4천5백원
- \* 북구 오치동 먹자골목내 일률촌 내대지 407㎡ 3억 2천만원 (상가주택, 원룸신축적합)
- \* 화순읍 혼리 공단빌라 4층 132㎡ 매매가 1억5천만원
- \* 백운동 서강중 인근 2층상가주택 대지137㎡ 1층점포3칸 2층주택 임대중 매매가1억7천만원
- \* 문흥지구 현대아파트 후문 맞은편 지상3층 상가주택 대지 249㎡ 건물474㎡ 1층점포3곳임 대 2.3층 주택4곳임대 (용8천 전1억2천만원) 매매가13억7천만원

\* 임대 \*

- \* 동구 운림동 중심사 버스종점 아담도어 매장 뒤편 2층 레스토랑 198㎡ 료원비 보증금3천 만원 월70만원 시비권있음
- \* 문흥지구 1층 교차구이 50㎡ 먹자골목내 중심상권 현 상업중 보1천만원 월1백만원 비권있음
- \* 남구 봉선동 삼익사거리 인근 2층 노래방225㎡ 료67개(음 현상업중 보2천만원 월1백70만원) 시비권있음
- \* 북구 오치동 먹자골목 입구 지하 노래하는 호프 7080 현상 업중 132㎡ 보증금1천만원 월80 만원 시비권있음
- \* 서구 벽진동 순환도로 서광주역 진입 도로점 대지1270㎡ 건평 198㎡ 보5천만원 월200만원 시비권있음 (식당적합, 모든업종가)

부동산 매도,매수 물건 성실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법원경매 물건 상담전문

상담 번호 010-6636-0114  
010-3627-3896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임대·급매매**

**웨딩홀 상설뷔페**  
임대 2,824㎡ (854평)  
주차 500대  
보2억 / 월1,500만  
매매가15억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임대 2,479㎡ (750평)  
주차 500대  
보2억/월1,200만  
매매가10억

급매인수 11억  
건물5,700㎡ (1,740평)  
보증금4억 /월2,700만  
감정가 78억  
급매가 25억  
용자역 14억

☎010-3605-7814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7층) 보5억4천,월3500만 매46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3억원, 월1200만원 매24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10층) 보25억, 월 6500만원 매130억원
- 광산구 수원지구(5층) 보2억원, 월1390만 매27억원
- 광산구 신항동(5층) 보2억,월1040만 매19억원
- 금호동 계획도로점 자연녹지 3,400㎡ 매32억원 (병원, 차고지, 대형가든, 장래 예식장, 투지최적)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원(병원,사옥)
- 치평동 광송간도로 395㎡ 매14억원(병원,사옥,전시장)
- 쌍촌동 운천역부근 상업지 845㎡ 매725억 (사옥,전시장,병원,도시형)
- 상가건물, 내대지 급구·

010-3753-0033

**공 장 매 매**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 토 지 】  
4,864㎡  
【 공 장 】  
375㎡  
【 사무동 】  
161㎡  
기계장치 포함

【 용 도 】  
특수시멘트 (울탈 등)제조공장

**매매가액 3억원**

조성중인 장흥공단 지 토지분양가 평당 239천원

017-602-1948